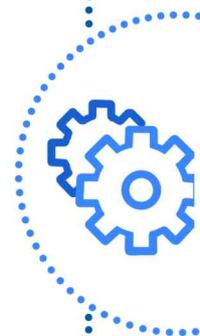




목 차

	인슈어테크 동향	21
해외	- 일본 손해보험사가 AI 주택손상 무료진단 서비스 개시	21
정책	- 저축·펫·해외여행자보험 플랫폼 비교·추천서비스 출시	22
	- 보험료 연체 때 'AI 음성봇'이 알려준다	23
	- 산재 업무처리에 인공지능(AI) 자문 활용한다	24
기업	- KB손해보험, 업계 최초 금융마이데이터 '공공정보' 탑재...2.0 시대 시동	25
	- 'AI 바람' 변곡점 맞이한 보험업계... 자동화 움직임 속속	26
	- 라이나생명, 건강상태별 보험료 제안한다	27
	- 보험사 '헬스케어', 포인트 쌓기서 건강 진단으로 확장	28
	- 캐롯손보, 車보험 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	29
	- DB손보 최대 21% 보험료 할인 "안전운전 선도"	3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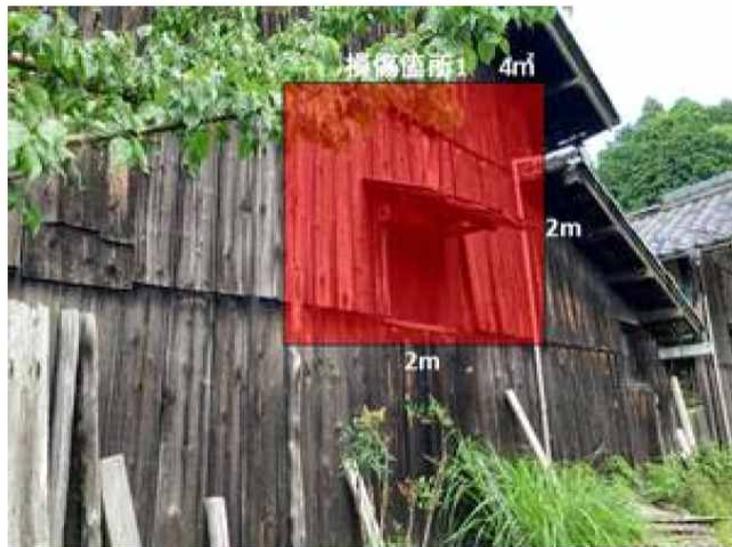


일본 손해보험사가 AI 주택손상 무료진단 서비스 개시

[住宅損傷AIで無料診断 三井住友海上とあいおい開始へ スマホで写真送り最短翌日に結果]

- ‘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’과 ‘아이오이 닛세이 동화손해보험’이 단독 주택의 손상 정도를 인공지능(AI)을 사용해 진단하는 서비스를 개시
 - 스마트폰으로 외관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해 전용 페이지에 전송하면 다음 영업일에 메일로 진단 결과가 회신되며 보험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
 - 외벽이나 처마, 기둥 등의 형태나 소재를 AI가 분석하여 손상 유무와 정도 등을 측정
- AI 주택손상 진단 서비스는 신계약 체결과 보험금 청구 등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
 - 준공일로부터 5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화재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이 필수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범위나 면책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
 - 보험금 청구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

<단독 주택 손상 진단 결과 이미지>



출처 : THE SANKEI SHINBUN(2024.07.12) 제목 住宅損傷AIで無料診断 三井住友海上とあいおい開始へ スマホで写真送り最短翌日に結果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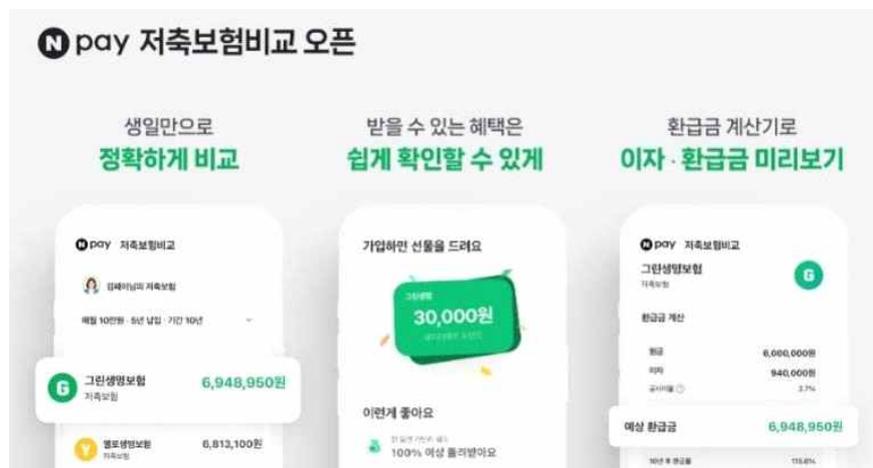
저축·펫·해외여행자보험 플랫폼 비교·추천서비스 출시

■ 네이버페이가 6월 27일 3개 생명보험사*와 함께 저축보험 비교·추천서비스를 출시

* 교보생명, 삼성생명, 한화생명

-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만기 시 일시금 또는 연금(특약 가입 시)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
- 소비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환급률, 보험료 납입기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여러 보험상품을 손쉽게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음

<네이버페이의 저축보험 비교·추천 서비스>



■ 펫보험과 해외여행자보험 비교·추천 서비스 또한 손해보험사와 함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에서 7월 18일 출시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

- 펫보험 비교·추천 서비스에는 점유율 1·2위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이 빠져있는데 이는 3년 만기 상품과 갱신형 장기 상품의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보험사의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
- 해외여행자보험 또한 6개 손해보험사*가 서비스에 참여하나 점유율 1위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삼성화재·현대해상·KB손해보험 등 대형사의 상품이 빠져있음
- 이는 네이버페이에서 대형사에 제시한 수수료율 9%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면 모집 수수료율을 높여야 하고,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

<해외여행자·펫보험 비교·추천 서비스 참여 보험사 및 핀테크사 목록>

대상	참여 보험사	핀테크사
펫보험	삼성화재, 현대해상, KB손해보험	카카오페이
해외여행자보험	롯데손해보험, 메리츠화재, 캐롯손해보험, 하나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NH농협손해보험	네이버페이

출처 :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4.06.27.)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·추천서비스 출시

머니투데이(2024.07.18.) 해외여행·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...1·2위 상위 보험사 다 빠진 이유

인슈어테크





보험료 연체 때 'AI 음성봇'이 알려준다

-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AI 음성봇을 이용한 납입최고(독촉)이 가능해짐
 - 보험회사는 기존에 서면(등기우편 등), 전화(음성녹음)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*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,
 - *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(독촉)하고 그 기간 내에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 -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보험회사가 AI 음성봇을 보험료 납입최고 업무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AI 음성봇(전자적 상품설명장치)를 이용한 납입최고가 가능해짐
- 보험회사가 AI 음성봇을 납입최고에 활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일정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함
 - AI 음성봇이 납입최고를 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
 - 납입최고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함
 - 질문이나 추가설명을 요청하는 등 AI 음성봇 사용 중단을 요구할 경우 전화 방식으로 전환(상담사 연결 또는 콜백)해야 함
 - 설명 속도,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
 - 위 내용들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함
- 보험업무에 AI 음성봇을 활용한다면 보험계약의 유지·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
 - 기존에 텔레마케팅(TM) 모집과 해피콜에서 AI 음성봇 이용을 허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AI 음성봇을 납입최고에도 활용한다면 보험계약 유지·관리 효율성의 제고로 이어질 것





산재 업무처리에 인공지능(AI) 자문 활용한다

- 최근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요양 관리 분야의 자문업무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
 - 산재 신청 건수는 '23년 196,206건으로, '21년 168,927건 대비 16.2% 증가
 - 기존에는 20여 명의 상근의사와 1,300여 명의 비상근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요양 기간 연장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나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약 8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자문 대상의 약 80%가 단순 자문에 해당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해왔음
-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'산재 보험 인공지능(AI) 요양기간 분석 지원 모델'을 개발하고 현장 활용을 시작
 - 모델 개발을 위해 최근 5년간 요양이 종결된 재해자 58만 명의 요양 정보, 상병 정보 및 주치의 소견 등 약 800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으며,
 - 특히 상병 내용과 연령 및 성별이 동일한 재해자의 요양 기간을 분석해 산재 요양 예측 일수를 제시하도록 함
 - 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2023년도에 요양이 종결된 12만 명의 데이터를 사용해 적용 결과를 분석·검토하였음
- AI 분석 지원 모델의 활용은 적정성 검토 처리 기간을 4일 이상 단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산재 관련 업무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
인슈어 테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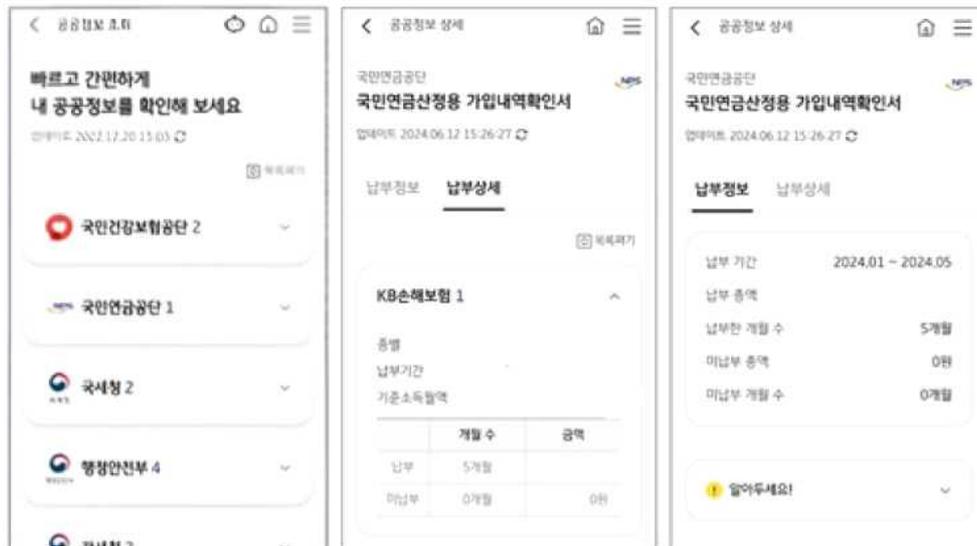
출처 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4.07.02.) 산재 업무처리에 인공지능(AI) 자문 활용한다



KB손해보험, 업계 최초 금융마이데이터 ‘공공정보’ 탑재...2.0 시대 시동

-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‘금융 마이데이터 공공정보 활용 서비스’를 탑재해 행정 정보를 KB손해보험 앱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됨
 - KB손해보험+다이렉트앱에 ‘마이 공공정보’ 서비스를 신규 출시하여 기존에 제공되던 ‘마이 자산’, ‘마이 보험’, ‘마이 건강’ 세 가지 서비스에 공공정보가 추가됨
 - ‘마이 공공정보’에서는 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, 연금가입내역확인서, 건강/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기존에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따로 조회해야 했던 12종의 행정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짐

<KB손해보험+다이렉트 앱 페이지>



- KB손해보험은 향후 조회가능한 공공정보를 더욱 확대하고 보험서비스와도 연계할 계획
 - 향후에는 행정 서류 56종에 대한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험 및 대출 등 금융상품 이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확인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
- KB손보는 2021년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고 공공정보 활용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마이데이터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

출처 : 전자신문(2024.06.25) KB손해보험, 업계 최초 금융마이데이터 ‘공공정보’ 탑재...2.0 시대 시동





‘AI 바람’ 변곡점 맞이한 보험업계... 자동화 움직임 속속

- 보험업계에 인공지능(AI)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며 보험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
- 보험 청구 프로세스 혁신
 - (신한라이프) AI 기반 보험금 신속 지급 서비스 ‘S-패스(Smart Claims Pass)’를 선보이며 고객의 청구 유형 및 진료 정보 입력만으로 심사 과정 없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우선 심사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
 - (메트라이프) ‘인공지능 기반 광학식 문자 인식 시스템(AI OCR)’으로 입원을 수반하지 않는 간단한 보험금의 경우 5분 이내로 빠르게 심사하고 지급하는 프로세스를 마련
 - (ABL생명)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 서비스에 AI OCR 솔루션을 탑재해 고객이 업로드한 병원 진단서 이미지 속 데이터가 자동으로 추출·입력돼 실시간 지급 조건 충족 시 보험금이 고객의 계좌로 바로 지급되도록 함
- 보험사 내부 업무 절차 자동화
 - (동양생명)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고객 응대를 위한 인공지능(AI)컨택센터를 구축해 운영
 - (DB손해보험) 빅데이터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설계와 사전 인수심사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는 ‘AI비서 시스템’을 도입하여 지난해 6월부터 3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보임
- 향후 보험업계의 AI 활용은 보험상품 개발, 언더라이팅, 보험금 지급 등 전 가치사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과 위험 관리 서비스 강화 등이 기대
 - 다만 아직 초기 단계로 설명 가능성, 신뢰성, 편향성, 개인정보 유출, 허위정보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 해결이 필요

인슈어테크



출처 : 에너지경제(2024.06.17) ‘AI 바람’ 변곡점 맞이한 보험업계... 자동화 움직임 속속



라이나생명, 건강상태별 보험료 제안한다

- 라이나생명이 인슈어테크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건강 상태와 병력 정보를 토대로 최적화된 보험료를 제안하는 ‘(무)다이나믹건강OK보험’을 출시,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
 - 라이나생명이 개발한 ‘무사고 매칭 프라이싱’ 시스템은 최소한의 건강 데이터만으로도 77가지 병력 고지사항을 자동으로 제안해 해당 사항 고지 결과에 따른 개인화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음
 - 또한 보험 가입 시 본인 인증 한 번으로 병력 고지가 가능하게 되어 가입 편의성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활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고객 피해 예방 가능
 - 기존 보험 가입 과정에서 필요했던 번거로운 추가 고지와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간소화함
- 생명보험협회는 해당 상품의 최적 고지문항 적용으로 개인의 병력에 따라 최적화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함

<라이나생명의 ‘(무)다이나믹건강OK보험’>



출처 : 디지털타임스(2024.07.09.) 라이나생명, 건강상태별 보험료 제안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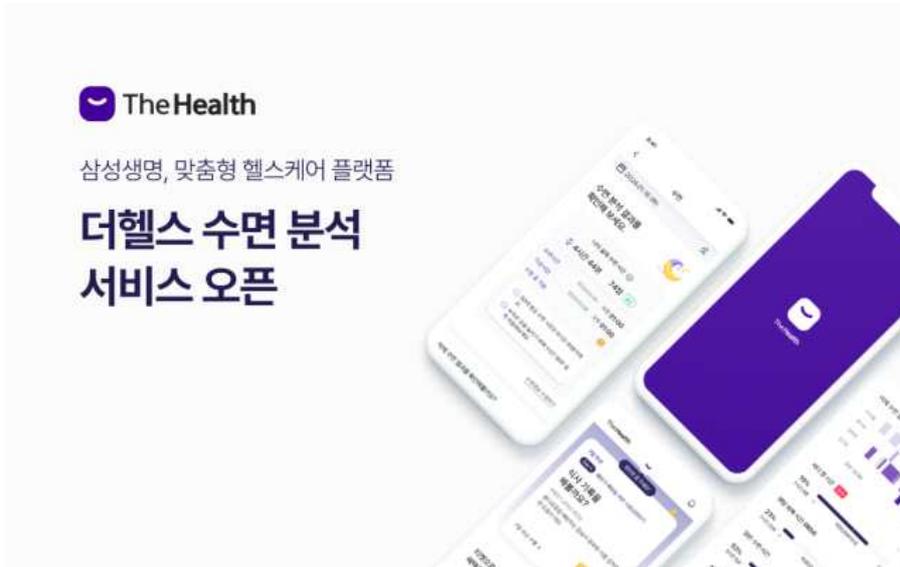




보험사 '헬스케어', 포인트 쌓기서 건강 진단으로 확장

- 보험사들이 건강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도입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분야를 확장하고 있음
- (삼성생명)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'더헬스'는 AI 수면 분석 서비스, 수면 주기에 맞춘 스마트 알람, 음식 사진 기반 자동 영양분석 등을 제공

<삼성생명의 '더헬스'>



- (삼성화재) 세브란스병원 AI연구소와 협력하여 개발한 앱 '애니핏 플러스' 앱은 AI를 활용해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16가지 질병 발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서비스와 30초 얼굴 스캔으로 신체 건강, 활력징후, 정신 건강 등을 진단하는 AI 건강관상 서비스 제공
- (현대해상) 두 개의 헬스케어 플랫폼 '메디케어'와 '하이헬스챌린지'를 일원화하고 건강정보 제공, 식단관리 기능 외에 진료 예약 기능과 질환별 병원 및 의사 추천 기능을 추가하며 플랫폼 고도화
- (KB손해보험) 자회사 KB헬스케어를 통해 B2B 헬스케어 플랫폼 'KB오케어'를 제공하고 비대면 진료 기업 올라케어 인수 추진 중
- (NH농협생명) 고객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 손해율 감소와 헬스케어 서비스 연계 보험상품 판매 확대를 목표로 'NH헬스케어'를 운영하며 현재 회원 수 39만 명 확보

인슈어 테크



출처 : 마이데일리(2024.06.22) 보험사 '헬스케어', 포인트 쌓기서 건강 진단으로 확장



캐롯손보, 車보험 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

- 캐롯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특약 ‘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’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동안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
 - 자동차보험으로는 2020년 캐롯손해보험 ‘퍼마일’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데 이어 4년 4개월 만에 두 번째로 배타적사용권 부여받은 사례
 - 배타적 사용권 신청 과정에서 최초 미부여 결정을 받았으나 업계 최초로 보험 기간 중 안전 운전 달성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및 환급해 주는 제도를 고안하는 등 기존 신청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
 - 손해보험협회로부터 기존 안전 운전 특약과 달리 고객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점에 대해 독창성과 진보성을 높게 평가받음

<캐롯손해보험의 ‘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’ 특약>



- 캐롯손해보험은 소비자의 보험 선택권을 넓히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

출처 : 조세일보(2024.07.03) 캐롯손보, 車보험 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





DB손보 최대 21% 보험료 할인 “안전운전 선도”

-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네이버 지도의 내비게이션 운전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운전 특약을 선보이며 데이터 기반 운전 습관 분석과 보험료 할인을 제공
 - 최근 6개월 내 500km 이상 주행 이력이 있고 운전분석 페이지에서 안전 점수가 71점 이상인 경우 최대 20.8%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UBI(Usage-Based Insurance) 특약 상품
 -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는 자사의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운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, DB손해보험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연계 및 상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함
- 최근 DB손보는 ‘어라운드 뷰 모니터’ 특약을 출시하여 해당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
 - ‘어라운드 뷰 모니터’는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차 안의 모니터로 차량 주변 360도 상황을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
 - 해당 특약으로 주차 및 좁은 길 주행 시 사고 위험 감소 효과를 기대

<DB손해보험 ‘어라운드 뷰 모니터’ 특약>



출처 : BLOTTER(2024.07.09.) DB손보 최대 21% 보험료 할인 “안전운전 선도”

한국경제(2024.07.06.) DB손보, 네이버와 맞손...내비게이션 기반 운전특약

